

시론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2025년은 미국을 다시 본 시간이었지만 미국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다. 1918년 우드로 윌슨(1856-1924)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했으나, 필리핀-미국 전쟁(1899-1902) 중 필리핀인들 100만 명이 죽었고,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1946년이였다. 하와이를 비롯한 여러 민족은 아직도 자결과 반대의 처지에 있다. 이전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일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윌트 휘트먼(1819-1892)의 시집 『풀잎』(1855)을 좋아하지만, 읽을 때마다 심경이 복잡해진다. 휘트먼은 『풀잎』 서문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국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지구상의 모든 국민들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완벽한 시적인 본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미합중국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장 위대한 시다.” 같은 문장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쇼비니즘이 가득 찬 찬사만 있는 건 아니다. “시민정신의 거대함과 관대함이 상호 교류하지 않으면 국민성의 거대함은 괴물과 같은 것이 된다.” 같은 경계의 말들도 들어있다.

휘트먼의 찬사는, 미국이 벌인 술한 폭력

휘트먼의 미국, 우리의 한국

과 학살의 역사를 알고 있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분명 과도하고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노예제, 원주민 학살 같은 악행의 역사를 고려하면, 미국에 대한 휘트먼의 이해는 현실을 외면한 낙관주의와 국수주의로 읽히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왜 그런 찬사를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당시에 쓴 찬사를 단순한 국수주의적 찬양이나 역사적 사실을 외면했다는 사실만 부각해 평가하기보다는 19세기 중반 미국이 처해 있던 특수한 역사·사상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855년의 미국은 정치적으로 미완의 국가였고, 독립 이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유럽의 왕정과 귀족적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상태였다. 남북 간의 갈등은 심각했고, 노예제 문제는 내전(1861-1865)으로 비화할 긴장을 안고 있었다. 휘트먼은 그런 불안정한 시기에 미국을 이미 완성된 국가로 찬미하기보다 완성돼야 할 가능성을 지닌 나라로 노래했다. 찬사는 현실의 미국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국을 향한 희망의 언어에 가까웠다.

단호하게 희망을 걸어왔던 미국은 최강국이 됐다. 하지만 완벽한 시적인 본성을 가진 것 같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위대한 시 같지도 않다. 악마적인 시장잡배의 본성만 드러나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 시적인 나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떤가? 윌트 휘트먼의 말을 변용해 “지구상의 모든 국민들 가운데 한국인들

이 가장 완벽한 시적인 본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한국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장 위대한 시다.”라고 해보자. 음악, 음식, 드라마, 영화, 문학... 한국의 여러 문화적 면면들이 지구인들의 감성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는 세태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무력이 아니라 문화라면 시라고 불리도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뭔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휘트먼은 시가 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구와 태양과 동물을 사랑하고... 질문하는 모든 이에게 시해를 베풀며... 누구에게도 모자를 벗지 않으며... 가족들의 어머니들과 자유롭게 다리고... 당신 자신의 영혼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배척하라. 그러면 당신의 바로 그 몸이 위대한 한 편의 시”가 된다고.

다른 나라들에 비친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을 보면, 시적인 본성은 지닌 것 같지만 시 자체인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휘트먼이 한 편의 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구현된 나라가 아니다. 전세·금융 사기와 보이스피싱, 폭력과 살인, 음주 범죄자들과 정치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다. 영혼을 욕되게 하더라도 돈만 벌면 그만이고, 질문하는 이들의 입을 막고 피해자들과 어머니들의 절규에는 귀를 막는 나라다.

휘트먼의 미국은 실현된 적이 없다. 미국이 그런 지경이라고 해서 미완의 한국에 대한 찬사를 그만둘 수는 없다. 우리가 사는 나라이니 가능성을 완성형으로 만들기 위해 가혹할 정도로 많이 노력해야 한다.

자치칼럼



김 병 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오랫동안 구호에 머무르고 있는 익숙한 표현이다. 이 구호가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지방의 현실은 더 악화됐다.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는 청년층이 빠르게 빠져나가며 지방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자치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역량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구호를 넘어, 지방이 자립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광주·전남이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치재정 강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장기 계획을 추진하려면 재정적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다.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배분을 조정하고, 지방세·공공세원 체계를 확충하는 것은 자치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자치역량을 키워야 한다. 단순히 권한을 넘겨받는 것으로 역량이 강화되지 않는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 전략을 선택할 능력과 구조를 갖추는 것이 자치의 핵심이다. 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럽의 지역혁신전략(RIS)처럼 지역이 강점과 기회를 분석해 미래산업을 명확히 설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광주·전남이 선택해야 할 핵심 산업전략 중 첫 번째는 에너지 대전환 산업이다. 전남은 국내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한 지역으로, 해상풍력·수상태양광·수소·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광주는 국가 AI 집적단지과 첨단 광산업을 기반으로 AI 기반 에너지 관리 등 기술적 강점을 가진 도시다. 이 두 지역이 협력하면 ‘전남의 에너지 생산 능력’과 ‘광주의 에너지 기술과 데이터 기반 능력’이 결합해, 국가 에너지 산업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초광역 에너지 혁신 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AI 중심 산업 구조 전환이다. 광주는 이미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국가적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자동차·센서·의료 데이터 분야에 강한 기반이 있다. 전남은 농생명 산업, 식품 가공, 해양·환경 데이터 등 ‘AI를 적용하기 좋은 분야’가 풍부하다. 광주가 AI 기술 역량을 공급하고, 전남이 데이터·응용 산업을 제공하는 구조는 매우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셋째, 지방소멸 극복이다. 핵심은 정주 환경 혁신이다. 많은 지역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지 일자리 때문만이 아니다. 의료, 교육, 문화, 여가, 이동, 주거 등 생활 기반의 질이 수도권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문화·예술 자산, 자연환경 등 강점을 갖고 있지만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투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넷째,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다. 독립적 행정과 통합적 경제를 의미한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독립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도시 간 경쟁이 아니다. 독일의 루르·라인 지역, 일본의 간사이권, 캐나다의 광역 뉴 토론토 등은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규모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광주·전남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산업, 교육, 교통, 문화, 관광, 인력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초광역 단위에서 공항·항만·도로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대형 프로젝트와 국제행사를 공동 유치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가치 활용이다. 광주·전남은 미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RE100 기반 산업단지, 수소·암모니아 생태계, 농생명 클러스터, AI 융합산업, 해양환경 및 탄소중립 기술, 문화·관광 콘텐츠 등 이미 기반은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의 거대한 비전과 내러티브로 묶어내고, 중앙정부와 글로벌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적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구호로 멈춰서는 안 된다. 지방이 실질적인 자치재정과 전략적 프레임을 갖추고, 정주환경의 질을 높이며, 디지털·에너지 산업전환을 선도하고, 초광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어떤 미래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부권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제는 말보다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법행위다

당연 커지게 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또한 나는 편장을 것이라는 자기 기만이나 경각심 부족에서 음주운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한잔은 괜찮다는 여전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주변인들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방관자적 태도도 음주운전 억제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마음자세다. 범법행위 인식에 앞서 ‘한잔쯤이야’라는 도

덕적 의식 해태는 곤란하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기본 좋은 자리에서 기본 좋게 마신 술 탓에 운전대를 잡는 최악의 선택은 안 된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앞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술과 운전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상서파출소장〉

독자투고

한 해를 보내며 좋았던 일들을 추억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에 술이 빠질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범법행각에 따른 나와 타인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거리감각과 방향감각이 평상시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서 돌발 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 또한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국토균형발전 완성할 과업인 호남서해안 철도 건설

광주와 전남, 전북을 아우른 호남 지역 국회의 원 24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철도 불모지인 서해안을 더 이상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인식에서다. 이들은 서해안철도와 광주 신산업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전략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우고 있다. 수도권에서 철수목 재정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우선 순위로 담겼고, 2026년도 예산에도 골목할 만한 수준으로 반영됐다.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특별한 보상을 예고했고, 또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정도로 미래를 담보할 투자가 전향적으로 이뤄지는 중이다.

해서 여전히 소외돼 있는 호남 서해안이 주목받는다. 동해선과 남해선은 완전히 개통됐고 경기·충청권을 잇는 서해선과 평택선 등도 총출해 ‘해안선 철도 신경계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달라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2026-2035년 청사진으로, 2025

년 연말 고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철도의 건설과 실현 가능성을 국가가 검토 및 보장하는 만큼 꼭 포함돼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동력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가 경쟁적으로 쇄도하고 있으나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서해안철도와 광주 신산업선에 한 목소리를 낸 이유가 정당성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내륙과 해안선 철도망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차별받은 응어리를 한방에 풀아주는 것일테고, 특히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을 완성하는 시대적 사명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가 건설된다면 이동 시간은 기존 시외버스 대비 무려 70분이나 줄어든다고 한다. 4만4천명의 고용 유발, 8조8천억 원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광주 신산업선은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시작해 광주송정역을 거쳐 영광에 이르는 구간이며, AI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성 논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지역경제의 회복과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풀이내야 한다. 국가의 책무에 관한 문제다.

달걀값 다시 상승, 물가 불안감 더욱 커지는 연말

매일 밥상에 오르다시피하는 계란의 특란 한 판(30개) 평균 가격이 7천원을 넘어섰다. 6천원대를 유지하다가 3주 만에 반등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세를 보이는 영향이다. 연말 외식 물가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 먹거리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AI가 걱정이다. 전남은 가금류 사육농장이 몰려있는 나주와 영암에서 3주일 새 4건이 발생했다. 올해 동절기 전국적으로 20건을 훌쩍 돌파했다. 야생조류와 농장에서 H5N1형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방역 당국이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가 늘었고, 산란계 300만 마리가 가까이 살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과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총력전이다.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12월31일까지 전국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선 철쇄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아직 계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외식 물가도 오르면서 우려를 더한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평균 상승률이 3%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에서는 냉면과 비빔밥 등 주요 품목 8개 가운데 5개가 전년 동기 대비 33%의 인상을 기록했다. 고환율까지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이다. 원·달러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당국의 전방위적 고강도 대응에 나서면서 급제동이 걸려 다소 주춤하고 있더라도 대내외 불확실 요인이 여전하다. 한국은행도 물가와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고병원성 A I 추이도 변수다. 서민들의 생활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체감 수준은 더 높다.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가 관리에 더 전력해야 하는 것이다.

아침물어는 詩

저기외로운곳에가로등이서있습니다

최상경



우리 동네 보안관
돌아오는 자식 기다리는 부모

일 년 삼백육십오 일
교대 근무도 없고
흔한 월차도 없는

극한 직업 야간 근무
선 채로 사는 가로등

때론 꾸벅꾸벅 졸다가
잔바람에도 번쩍 눈뜨는 너
몸에 땀 지독한 직업병

네 곁을 땀도는 밤
우린 서로 닮았나 보다
(시집 '네모 속에 들어온 달', 도서출판 상상인, 2025)

[시의 눈]
흔히 밤거리에서 마주치는 가로등. 의미 없이 스치는 가로등은 그저 가로등일 뿐이다.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수

없이 내려있는 인공적 소도구
쯤에 불과한. 그러나 가로등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며 길게 들
여다본 가로등. 거기에는 세계를 이해하는 코드가 들어있고
정서적 공감이 함축돼 있음을 발견케 된다. 양상한 겨울 나뭇가지 사이로 비집고 흐르는 가로등 불빛은 돌연 인간적이다. 깊은 심야에 차량 드문 밤거리를 운행할 때 인기척하며 다가오는 가로등 불빛. 일순 든든한 반가움이 아닐 수 없다. 파스한 위안이자 위로이다. 가로등의 가치는 깜깜한 밤일수록 빛난다. 그리하여 가로등은 단순한 가로를 비추는 인공물이 아닌 삶의 길을 제시하고 비추는 숭고한 사유물이 돼 가슴에 스며든다. '때론 꾸벅꾸벅 졸다가/ 잔바람에도 번쩍 눈뜨는 너/ 몸에 땀 지독한 직업병'에 드러난 것처럼 가로등은 졸음을 견디고, 세파를 견디며 멀려진 책무를 수행한다. 가로등에서 짓눌린 어깨를 추스르는 가장의 버거움이 들어다 보인다. 교대 근무도 없이 온밤 지새우는 팍팍함을 고스란히 견디는 미더움을 본다. 인간의 부족함이 아닌 독립된 미학적 오브제로서 고귀한 몸짓으로 가로등은 서 있다. <양상한·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부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 (일간)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